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한혜*	학번	
파견국가	캐나다	파견도시	밴쿠버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2017. 1. 15(일) ~ 2. 5(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위치는 다운타운이랑도 가깝고 2존이랑도 가까워서 좋았고 학교 규모는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습니다. 시설은 깨끗하고 좋았고 캐나다인보다 다른 국적 학생들이 많아서 신기했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분반은 따로 하지 않았고 순천향대 학생들 끼리 수업을 들었습니다. 수업내용은 전반적으로 캐나다에 관해 배우는 수업이었고, 수업방법은 보통 그룹토론이었고 파트너와 대화를 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과제는 하루에 한 개씩은 꼭 있었고, 1주일에 한 번 씩 저널을 쓰는 과제도 있었습니다. 수업준비는 딱히 할 게 없고 과제만 제대로 해가면 될 것 같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활동은 컬링, 스노우슈잉, 아쿠아리움, 박물관 관람 등이 있었습니다. 컬링 이랑 스노우슈잉은 직접 체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장을 갖춰야 하는데 장갑이랑 부츠는 필수이고 두껍고 방수가 되는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쿠아리움이나 박물관은 딱히 준비할 게 없었고, 스노우슈잉을 할 때 학교 측에서 대여할 수 있는 물품(발목보호대 등)이 있는데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거 없어도 그냥 할만함)</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첫 주에는 비가 계속 오고 바람이 불어서 불편했는데 둘째 주는 내내 화창해서 좋았습니다. 기온이 한국보다 높아도 눈이나 비가 오면 생각보다 추우니 옷을 잘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우산은 홈스테이에서 챙겨 주기도 하지만 개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캐나다에서 우산이 생각보다 비싸니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비가 정말 많이 올 때만 쓰고 보통일 때는 귀찮아서 그냥 안 쓰고 다니게 됨. 방수가되는 부츠나 레인부츠는 있으면 좋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캐나다 와서 사는 게 훨씬 싸고 종류가 많아서 좋습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강 안전함. 한국보다 안전 올해부터? 대마가 합법이 되어서 대마를 피는 외국인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권유받거나 경험해 볼 기회가 있어도 안하는 걸 추천함</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o)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독신가정에서 살게 되어 집은 그리 크지 않았고, 가족이 많아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런 점은 없었습니다. 학교와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스카이트레인과 버스를 모두 이용했어야 했고 집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가 있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규칙은 딱히 없었고 정말 내 집처럼 편했습니다.</p>
식사	<p>학교식당(o) 홈스테이 (o) 외부식당 (o)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점심은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데 홈스테이에서 챙겨주는 집도 있었지만 저는 홈스테이맘이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해갔어야 했습니다. 첫 주는 아침에 일어나 준비해갔는데 그 다음주부터는 귀찮아서 학교식당에서 사먹거나 외부에서 사가서 먹었습니다. 저녁은 딱 3번만 집에서 먹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에서 사먹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통학은 스카이트레인과 버스를 이용했고 시내교통은 정말 잘 되어있습니다. 처음에만 스트리트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데 다니다보면 한국보다 배차도 많고 길도 쉬워 적응하기 쉽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및 여행자보험	약 1,200,000원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400,000원	
쇼핑	약 400,000원	이건 현금이고 나머지는 카드로 끊음
개인 Activity	약 200,000원	입장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쌘
합계	약 100,0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

꼭 캐나다에 대해 미리 공부를 해가는 것이 좋고, 솔직히 3주 동안 공부를 한다니 보다는 캐나다 여행을 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이왕 간 김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최대한 많은 곳을 둘러보고 오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외식비가 한국보다 비싸다고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한국에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많으니 모두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 친구를 사귀게 되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으니 먼저 다가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동전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한국에서 쓰던 지갑보다는 카드와 동전을 넣을 수 있는 동전지갑을 들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캐나다에서 사도 좋음)

그리고 쇼핑을 할 때는 무턱대고 보자마자 사지 말고 꼭!!! 여러 곳을 둘러보고 가격비교를 해서 사야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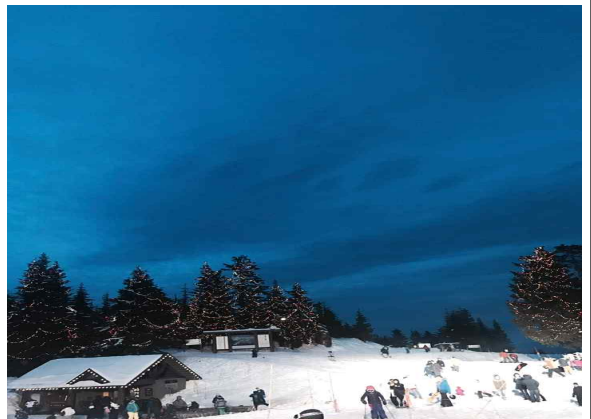
정말 정말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어학연수를 하러 갔던 것이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로 이민을 오는지 알게 되었고 저도 캐나다에 정착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행을 위한 나라로는 그닥 좋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지만 3주 동안 살면서 캐나다는 살기 좋은 나라다. 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친절하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은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짧은 시간동안 영어실력을 향상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재밌게 놀다가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것을 경험

하고 나니 이 곳으로 공부를 하러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고 이번 해에 캐나다 교환학생을 준비해 다시 랑가라로 공부를 하러 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주 어학연수를 가게 된다면 영어실력 향상보다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스탠리 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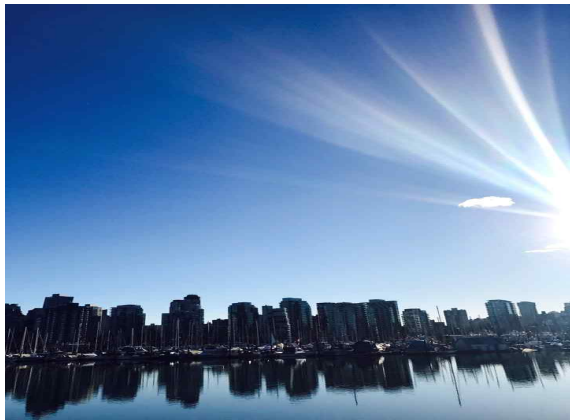
그라우스 마운틴



푸틴(캐나다 전통음식)



캐필라노



스탠리파크



친구들이랑 펍